

달아오른 청문회 정국...여야 기사움 팽팽

“전원 통과” vs “조국 사퇴” 야권, 조 후보 각종 의혹 제기 제2의 타깃 누가될지도 관심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인 반면, 보수 야권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등 승소 검증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 **하이라이트 조국 청문회** = 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 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과원) 강령 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꾀한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청문 정국을 달구는 소재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우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공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 9000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는 것이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제2의 타깃'**은 누구= 조 후보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논란거리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에 이은 '제2타깃'으로 두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논문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부실학회' 논란이 불거진 상태며 최다 재산(106억원)을 신고한 점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수출입 은행장 등으로 재직하던 최근 3년동안 2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 기부한 데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병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3개월만에...한국당 다시 거리로

24일 광화문서 장외집회 위기의 황교안 보수 결집 노력

자유한국당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지난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한 이후 3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18일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과제와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했다.

황 대표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대전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며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제시했다.

황 대표가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 대표가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결집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장외집회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고,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외집회를 통해 '막말성' 돌출발언이 나오는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 선언, 바른미래 결별 신호탄?

19~20일, 정면돌파 의지 표명 오신환 기자회견 역풍 나설 듯

바른미래당의 내홍 국면이 이번 주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우선 손학규 대표의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에 정면돌파 의지를 담은 '손학규 선언'에 나선다. 반면, 비당권파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파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손학규 선언'과 '오신환 기자회견'이 정면 충돌하는 셈이다.

손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손 대표가 오는 19~20일 사이에 '손학규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의 방향과 진로, 총선전략 등을 담아 손 대표가 그동안 역설해 온 '제3지대' 세력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학규 선언이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잠재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손학규 선언이 바른미래당의 결별을 촉진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손학규 선언'과 '오신환 기자회견'이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손 대표를 향한 역풍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평화당, 원내 5당으로 추락...대안 정치는 창당 작업 본격화

장류파 현역의원 4명만 남아 탈당파 20일 창당기획단 띄워

탈당 의원들의 탈당계가 16일 발표되면서 민주평화당은 정의당(6석)보다 적은 의석수를 가진 원내 5당으로 밀려났다.

당에 남은 의원은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중립파) 의원 등 4명이다.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당적은 바른미래당이다. 이로 인해 정동영 대표는 당장 내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없게 됐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는 관행적

으로 5석 이상 정당에 주어진다.

나아가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중립파 의원 중 추가 탈당자가 나올지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의원이 추가 탈당해 의석수가 3석 미만이면 현재 쓰고 있는 국회 사무실을 내줘야 한다. 그러나 당장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일찌감치 잔류를 택했고, 황주홍 의원은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의 의원은 고심 끝에 일단은 탈당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 대표는 탈당파의 탈당 선언 직후부터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며 저항권을 펴고 있다.

녹색당과 우리미래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안정치는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대안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서울·광주·경기·전북·전남 등 5개 시도당 창당 준비에 나서고, 추석 연휴 시작일인 내달 12일 이전에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정식 발

족할 계획이다. 추석 밤샘에 제3지대 신당을 화젯거리로 올린다는 계산이다.

대안정치는 인재 영입에도 몰입 피치를 올리고 있다. 신당의 간판이 될 수 있는 '제2의 안철수' 모시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대안정치는 중도 성향의 확장성 있는 정치 신인을 발굴, 신당 대표직과 함께 공천권 등 전권을 넘겨줘 내년 총선 지휘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대안정치 추가 합류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평화당 내 중립파는 일단 잔류 가능성이 크고, 무소속 손준주·이용호 의원 등도 광범 중

정가라운지

장병완 의원 윤한덕 국가유공자 지정 노력 공로패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국회의원이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노력에 대해 전남대 의과대학과 의대 동문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18일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대의대와 동문회는 고 윤한덕 센터장이 지난 13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자격으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되기까지 전방위로 노력한 장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전체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윤한덕 센터장이 순직한 직후인 2월부터 정치권 최초로 정무위 회

의를 통해 보존처리에 윤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장 의원은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보존처리에 촉구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분들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성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무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하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